

‘댕댕이·냥냥이’ 등록수 서울 1위... 슬기로운 ‘반려동물 천국’ 용산

입력 : 2020-12-02 17:28 | 수정 : 2020-12-03 00:19



용산구가 지난 10월 용산가족공원에서 반려견 돌봄활동가 실습 교육을 하기 전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는 등록된 반려동물이 1만 마리가 넘어 서울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2년 전 민선 7기 공약으로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용산’을 내세웠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성 구청장은 ‘몽이’라는 반려견을 18년간 키우다가 2018년 떠나보낸 애견인이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용산구는 민선 7기 출범한 2018년부터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용산구는 인구대비 반려견 등록 비율이 5.8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강남구(4.68%), 중구(4.66%), 도봉구(4.62%), 마포구(4.57%)보다 훨씬 큰 수치다. 용산구의 등록된 반려동물은 올해 초 기준 1만 661마리에 달한다.

가장 먼저 '서울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을 키우는 주민을 상대로 동물등록제 홍보와 동물보호교육을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인이 '집콕' 생활을 하면서 반려동물도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용산구는 10~11월 두 차례 비대면으로 '슬기로운 반려생활' 교육을 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와 '고양이를 부탁해'에 출연 중인 설채현, 김명철 등 유명 수의사가 강사로 나섰다. 반려견 편과 반려묘 편으로 나눠 반려동물과 실내생활하는 법, 반려동물의 이상행동 대처법에 대해 강의했다.

반려견 돌봄활동가도 양성한다.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주민기술학교'에서 반려견 돌봄활동가 수업을 진행한다. 3년 이내 반려견을 키워 본 경험이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10월부터 재개했다. 용산구에서만 매년 300건에 가까운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기간 열흘을 지나 안락사를 앞둔 유기동물이 이태원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주민은 현장에서 입양신청서를 쓰면 된다. 입양 이후에도 1년간 한 달에 두 번씩 동물소식을 점검하는 등 관리도 철저히 한다. 성 구청장은 "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구가 애쓰고 있다"며 "동물 안락사를 없앨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